

CollectiveAccess를 활용한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 J미술협회를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Digital Art Archives Using CollectiveAccess for Local Arts Organization : A Case of J Art Association

박 준 형(Jun-Hyeong Park)** · 박 지 원(Ji-Won Park)***
한 희 영(Hui-Lyeong Han)**** · 정 지 나(Ji-Na Jeong)*****
김 용(Yong Kim)*****

<목 차>

I. 서론	1. 국내사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국외사례
2. 연구방법	3. 시사점
3. 선행연구	IV.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II. 이론적 배경	1. J미술협회 기록물 유형 및 특징
1. 지역예술단체	2. 구축 시 요구사항
2. CollectiveAccess	3.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III. 국내·외 디지털 아트아카이브 사례	V. 결론

초 록

지역예술단체는 공연, 전시, 공모전, 축제 등 지역 내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지역예술가의 정보 공유의 장, 신진예술가 발굴 및 지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주도하며 오랫동안 지역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지역예술단체 기록은 과거와 현재의 지역문화예술의 수준과 가치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기록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산된 지역예술단체의 기록은 이용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개소프트웨어인 CollectiveAccess를 기반으로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공개소프트웨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CollectiveAccess, 지역예술단체, 디지털아트아카이브

ABSTRACT

Local Arts Organization has performed various events in the provinces such as performances, exhibitions, competitions, and festivals, has been a place where local artists share information of arts,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art culture in the provinces for a long time. Records of Local Arts Organization are historical records showing the level and value of past and present local cultural arts, so systematic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s necessary. Also, since the records of Local Arts Organization are high in interest and demand of users, exhibition services are needed to show them eff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shows how to construct a Local Arts Organization based on CollectiveAccess, which is open software, to manage Local Arts Organization and provide exhibition services.

Keywords: Open software, Open-source software, CollectiveAccess, Local arts organization, Digital arts archive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13575)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gulseori@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jwpark1982@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sharinny@naver.com) (공동저자)
*****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조교수(naji2004@jj.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장(yk9118@j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7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8월 29일 •게재확정: 2017년 9월 20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303-331,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9.303]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예술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실 위험에 처한 기록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예술기록, 아트아카이브, 예술아카이브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사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공연예술분야나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아카이브가 등장하고 지역 차원에서 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되고 있다(설문원 2011). 문화예술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 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흐름 속에 현재 국내에는 해외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과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유명작가의 블록버스트급 대형전시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규모의 각종 비엔날레가 개최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아트페어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미술품의 3차 시장인 옥션 또한 그 개수와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정공주, 박주석 2014).

현대인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와 비중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비중이 증대되고 그 역할이 커지면서 각 지역마다 예술관련 각종 공연, 전시, 공모전, 축제 등 다양한 예술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예술단체의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들은 단순히 특정 단체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과거, 현재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이다. 지역문화자산이 될 수 있는 지역예술단체 기록은 사립단체라는 지역예술단체의 특성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록들이 방치되고 있다. 지역예술단체의 기록은 음악·연극·무용·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지역예술인들이 남긴 활동 기록이며, 해당 지역 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예술단체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예술단체에서 생산되어지는 대부분의 기록은 공연, 전시, 공모전 등 특정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들이다. 이러한 특징의 기록들은 일반 행정적인 기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 이용자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예술단체들은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따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쉽게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효과적인 전시 서비스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예술단체인 J미술협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인 CollectiveAcces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 방안과 지역문화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의 가치를 충분히 살리고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먼저 지역예술단체의 개념 및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예술단체 웹사이트 조사와 J미술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예술단체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과 함께, 공개소프트웨어인 CollectiveAccess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기록관리에서 활용되었던 다른 공개소프트웨어와 기능 비교를 통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있어 CollectiveAccess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J미술협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에 앞서 지역예술단체의 특징과 J미술협회 기록의 유형과 특징, 국내·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분석 등 선행된 분석을 기반으로 J미술협회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시 요구되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과 CollectiveAccess를 기반으로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3. 선행연구

지역예술단체에서 생산하는 기록들은 예술 활동이나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로서 선행연구로는 예술 관련 기록을 다루고 있는 예술 아카이브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와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공개소프트웨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았다. 예술 아카이브는 아트아카이브, 예술기록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오동욱(2013)은 아카이브, 문화예술자원 등에 대한 개념과 보존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예술자원 보존·관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서 문화예술 아카이브와 관련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김달진(2012)은 미술자료실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을 통해 미술자료의 내용, 운영상황, 아카이브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한국 미술계 아카이브의 현황을 통해 현 미술아카이브의 수집여건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이경(2011)은 국립예술자료원을 중심으로 예술기록관리의 관리, 보존과 활용, 이용가치에 대한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립 예술기록관리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도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정혜린과 김익한(2009)은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국외 현황과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열악함을 비판하고 미술 아카이브를 전문적 기록정보관리의 차원에서 조망하였다. 정명주(2006)는 아트 아카이브의 역사와 미술도서관, 미술관과의 비교를 통해 아트 아카이브 개념을 정의하고 아트 아카이브 유형을 미술관 부설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미술관 소속 아트 아카이브와 독립된 기관으로 기록관의 미션에 따라 운영되는 수집형 아트 아카이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기록의 수집, 정리, 기술, 서비스에 대한 아트 아카이브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로 박상애와 김기영(2016)은 영구보존기록으로서의 아트 아카이브와 현장에서 재 구조화된 아트 아카이브가 공존하고, 디지털매체가 기록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아트 아카이브의 개념과 선별기준, 그리고 평가기준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로 박태연과 신동희(2016)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들을 선별하여 평가·분석하였다. 기존 공개소프트웨어 평가 연구들을 통하여 평가 기준들을 종합하고, 사회적 기억을 담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2014)는 최근 기록 컬렉션 구축 및 웹전시에 많이 사용되는 공개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쉽고 경제적으로 소규모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기록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2014)은 OMEKA를 이용하여 부산항과 인근지역의 경관에 관한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최윤진 외(2014)는 공개소프트웨어인 OMEKA의 특징과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전시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울시 이미지 기록을 사례로 전시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보람 외(2014)는 민간 아카이브의 시스템에 대한 부담감의 돌파구로서 공개소프트웨어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인 AtoM 기능을 상세하게 살펴 보았다. 방기영 외(2016)는 기록관리용 공개소프트웨어인 AtoM(Access to Memory)과 OMEKA를 활용하여 지역 축제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각각의 공개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지역 축제기록 관리에 적합한 공개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축제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술기록이나 예술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로는 음악, 사진, 공연예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아카이브들이 구축되어 있으나 많은 부분 시각예술기록 특히 미술 관련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들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예술단체에 관한 기록을 다루

고 있는 예술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전무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공개소프트웨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는 AtoM 이나 OMEKA를 활용한 아카이브 구축 연구들이 대다수였으며, 아직까지 CollectiveAccess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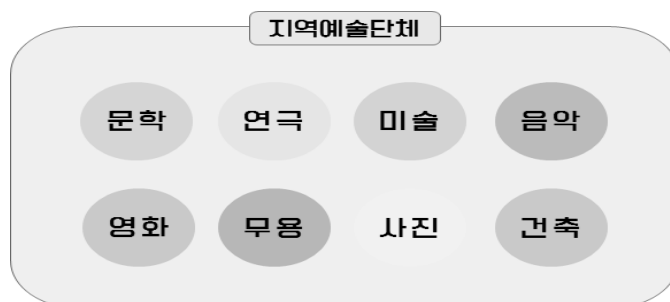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예술단체

가. 지역예술단체 개념 및 특징

문화란, 흔히 학문·예술·종교·도덕 등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예술이란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하여 미(美)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로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영화 등을 지칭하며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가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는 집단을 뜻한다(양효석 2004).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예술단체의 개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가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예술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지역예술인의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을 옹호하며 전문적인 예술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단체를 의미한다. 지역예술단체는 지역 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서 예술 전문 활동과 예술 교육등을 하며 지역의 예술관련 사업을 주최하고 있다.



<그림 1> 지역예술단체의 범위

지역예술단체의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미술, 건축,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국악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지역예술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같은 분야 예술가의 화합과 단결, 관련 분야의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지역의 예술 관련 사업 및 행

사 등을 주관한다. 셋째,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후진양성에 노력한다.

지역예술단체는 지역의 예술 관련 사업 및 행사 등을 주관하여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적, 정서적 유익을 전하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예술관련 축제, 공연, 전시 및 행사 등과 같은 사업을 개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많은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기록의 상당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관리방법 없이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문화 자산으로써 문화적·교육적·행정적·역사적인 기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예술단체의 기록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지역예술단체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지역예술단체는 지역예술문화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예술관련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록들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예술단체는 각 지역에서 예술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을 주관하며 지역의 예술 문화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정서적 유익을 전해주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가져 오며,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지역예술단체의 기록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기록과 예술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며 생산되는 프로젝트 성격의 기록들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조사된 지역별·예술 분야별 예술단체 현황은 <표 1>과 같다.¹⁾

<표 1> 2006년 지역별·예술 분야별 예술단체 현황

지역 \ 분야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서울	35	169	7	9	127	191	241	132	96	56
부산	35	32	1	1	43	59	41	33	5	0
인천	14	26	6	0	29	38	25	20	0	1
광주	0	1	0	0	7	15	8	5	0	0
대구	33	42	0	3	63	66	30	21	3	1
대전	40	78	13	0	27	37	15	20	0	1
울산	0	0	0	0	9	3	5	6	0	0
경기	0	8	0	0	74	119	71	48	1	0
강원	60	80	24	0	77	57	45	23	2	14
충남	0	0	0	0	15	21	13	10	0	0

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매 3년마다 예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2006년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역 및 예술 분야에 따라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0으로 표시된 곳도 있다.

충북	37	42	24	1	39	30	16	7	2	3
전남	0	0	10	0	46	6	10	7	0	0
전북	114	193	34	1	113	107	27	35	4	21
경남	60	97	21	0	93	76	27	28	0	1
경북	79	153	39	0	73	55	28	13	0	11
제주	0	0	0	0	8	17	8	4	0	0
합계	507	921	179	15	843	897	610	412	113	109

출처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년 예술단체 실태조사」, 2006, p.9 표 재구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 이후 예술단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2017년 현재 예술단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현재 예술의 영역에 만화, 대중음악, 방송등이 포함되는 등 예술 분야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으며 예술인의 수도 훨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예술단체의 수나 규모 면에서 2006년보다는 현저히 감소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의 지역예술단체 전체 현황을 보면 미술분야가 921개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음악, 국악분야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다른 지역예술단체는 미술분야의 지역예술단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예술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미술분야에 속한 J미술협회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962년 3월에 설립된 J미술협회는 J지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미술인의 자질을 배양하며 지역의 미술 문화 창달과 진흥을 적극 도모하며 국내외 미술교류를 촉진하고 J지역 미술인들의 화합과 단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J미술협회는 지역미술발전을 위해 올해로 49회를 맞은 J미술대전을 비롯하여 198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영·호남미술교류전, 나우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영·호남 미술교류전은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전시 확대를 통해 지역 간의 미술 발전과 흐름을 재조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을 웹사이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용자들은 기록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J미술협회의 웹사이트는 협회소개, 미협사업, 회원 및 갤러리, 정관 및 서식 게시판 등의 간단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미술대전이나 영·호남미술교류전 같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전시 서비스는 전혀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J미술협회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웹사이트 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J미술협회의 기록관리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용기록, 준현용 기록에 대한 구분이 없다. 둘째, 활동 중에 생산되는 모든 기록에 대해 단순히 시기별, 주제별 파일철로 분류하고 있다. 주제별로 관리되는 되고 있지만 연도별 기록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록의 유형에 따른 구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기록철의 주기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 셋째,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기록에 대해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실에 그냥 쌓여있다. J미술협회가 한 해 생산되는 기록의 양은 전자기록의 경우 프로젝트 관련 서식과 사진기록으로 대략 300~400건 정도되며 비전자기록의 경우 도록, 사진, 접수증, 예결산자료, 회의자료등 대략 500건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쌓여있어 현재 J미술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양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오랫동안 기록관리의 부재로 미정리된 기록이 상당하고 미정리 기록물 속에는 증빙적 가치가 소멸한 기록과 중복된 기록들이 한데 뒤섞여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넷째, 기록관리에 대한 절차, 지침 등 체계가 없어 기록의 분류와 처리가 관리자의 주관성으로 인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록들도 미정리기록이 될 뿐 아니라 훼손될 위험성도 크다. 다섯째, 웹사이트는 단순히 운영에만 그칠 뿐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은 전무한 상태이며 전시 서비스 또한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 J미술협회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기록을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2. CollectiveAccess

가. CollectiveAccess의 특징

CollectiveAccess는 기록관, 박물관 및 특수한 컬렉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개소프트웨어이다. CollectiveAccess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래밍 개발자그룹인 Whirl-i-Gig가 주축으로 북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활동하고는 협업 조직과 함께 만들었다. 2003년에 웹기반 목록 시스템 프로젝트인 “Open Collection”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 “CollctiveAccess”로 프로젝트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1년 CollectiveAccess 1.0버전을 출시하였으며 2017년 4월 1.7버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정지훈 2014). 현재 CollectiveAccess는 기록관, 박물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 비영리단체, 개인수집가, 예술 스튜디오, 공연예술기관 등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박태연 2016).

CollectiveAccess는 데이터 관리 및 목록화 어플리케이션인 Providence, 선택적인 “Front-end”시스템으로 Discovery 플랫폼을 지원하는 Pawtucket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있다. Providence는 사용자가 다양한 기록유형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잡한 컬렉션의 각 기록에 대한 계층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Providence는 여러 가지 검색도구와 고급 디스플레이 기능과 등록도구, 일괄편집 및 가져오기 기능, 우수한 미디어 처리 기능을 지원하며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들을 목록화 할 수 있다. Pawtucket은 공개 컬렉션을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풍부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특히, 웹기반 공개소프트웨어로서 특정한 장소, 기기에 상관없이 웹 브라

우저를 통해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CollectiveAccess의 구성요소들은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이 가능하다. CollectiveAccess는 DublinCore, DarwinCore, EBUCore, PBCore, CDWA-Lite/CCO, VRACore, SPECTURUM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지원하며 Excel, PowerPoint, PDF, MARC, FilemakerPro DSO XML, InMagick XML과 같은 데이터 포맷을 가져올 수 있으며 OAI-PMH 포맷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다.

CollectiveAccess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9·11 메모리얼, 국립 민속 아카이브 이니셔티브(National Folklore Archives Initiative), 뉴욕 주립 아카이브(New York State Archives), 시카고 영화 아카이브(Chicago Film Archives), 미시간 대학 예술박물관(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뉴욕 소사이어티 도서관(New York Society Library) 등이 있다(정혜지 2016). 이처럼 CollectiveAccess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사나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자료들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기관에서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공개소프트웨어 기능 비교

지금까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는 기록관리학에서 규정한 절차를 제공하는 AtoM과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OMEKA를 사용하였으며 이외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되었던 AtoM, OMEKA를 사용하지 않고 CollectiveAccess를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특징을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선정이 중요하다. 지역예술단체 기록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행적적 측면의 기록과 프로젝트,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전시적 측면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계층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기록의 특성에 적합한 메타데이터와 문서, 이미지, 영상 기록을 포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행사에 관련된 기록들은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전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쉽게 원하는 기록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 각 공개소프트웨어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계층 표현에 있어서 CollectiveAccess와 AtoM은 ISAD(G)에서 규정한 기술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OMEKA는 Collection-Item으로 구성된 단순한 기술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OMEKA는 웹전시가 주요 특징이기 때문에 쉽게 전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단순한 기술계층을 사용한다.

〈표 2〉 OSS 기능 비교

	CollectiveAccess	OMEKA	AtoM
기술계층 표현	- 컬렉션, 시리즈, 철, 권으로 폭넓은 기술 계층 제시	- 컬렉션, 권 단위의 단순한 기록 기술 계층 제시	- 컬렉션, 시리즈, 철, 권으로 폭넓은 기술 계층 제시
메타데이터 및 기록기술 규칙 지원	- DublinCore, DarwinCore, EBUCore, PBCore, CDWA-Lite/CCO, EAD, DACS, ISAD(G), VRA Core, SPECTURUM - 소스코드 수정 없이 UI를 통해 유동적으로 필요한 요소 설정 가능	- DublinCore 기반 - 플러그인 추가로 PBCore, VRACore 사용 가능 - 소스코드 수정을 통해 임의 요소 설정 가능	- MODS, RAD, DACS, ISAD(G), DublinCore
데이터 포맷	- 문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파일 뿐만 아니라 Excel, PowerPoint, Word, PDF, XML, 3D Scans 포맷 지원	- 문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파일 포맷 지원 - 일부 포맷은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 파일 용량 64mb로 제한	- 문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포맷 지원
전시 콘텐츠	-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기록에 대한 뷰어 지원 - 다중페이지 문서, 3D Scan 뷰어 지원 - LibreOffice와 호환 가능 - 등록된 컬렉션을 활용하여 별도의 전시 콘텐츠 생성 가능	-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기록에 대한 뷰어 지원 - 등록된 컬렉션을 활용하여 별도의 전시 콘텐츠 생성 가능	-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기록에 대한 뷰어 지원
이용자 접근성	- advanced Search 지원 - Browse 지원	- Tag Search, Keyword Search 지원 - advanced Search 지원 - Browse 지원	- advanced Search 지원 - Browse 지원

세 가지 공개소프트웨어는 공통적으로 DublinCore를 지원하고 있으며, AtoM은 이외에도 MODS, RAD, DACS 등 각 국가별 보존 기록 기술 규칙을 지원하고 있다. OMEKA는 DublinCore를 기반으로 한 PBCore, 시각문화예술에 대한 표준 메타데이터인 VRACore를 지원하고 있으나 PBCore와 VRACor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CollectiveAccess는 DublinCore, DarwinCore, EBUCore, PBCore, CDWA-Lite/CCO, EAD, DACS, ISAD(G), VRA Core, SPECTURUM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 및 기록기술규칙 표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소스코드 수정 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각 공개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문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데이터 포맷을 등록 가능하다. 그러나 OMEKA는 일부 포맷을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64MB 이상의 데이터 파일을 등록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CollectiveAccess는 PowerPoint, Word, PDF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포맷 이외에 다양한 포맷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toM은 다양한 기록관리학 분야 표준을 지원하며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전시 콘텐츠를 생성하기 어렵다. OMEKA는 다양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며 전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

지만 기록관리학 분야의 표준을 지원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계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한편, CollectiveAccess는 기록관리학 분야 표준과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며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체를 운영할 때 생산되는 행정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로젝트, 행사 등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들을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는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에 CollectiveAccess가 가장 적합한 공개소프트웨어라고 판단하고 선정하였다.

Ⅲ. 국내·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

1. 국내사례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유형은 그 소장품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술가, 수집가, 화상, 비평가, 출판인,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협회, 화랑 등 예술 관련 기관의 원본 기록자료를 보관하는 아카이브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준 작품적 성격의 자료를 소장한다. 회화, 조각, 건축, 산업디자인을 위한 스케치, 원본 삽화 등의 시각예술에 준한 작품 자료를 수집한다. 세 번째 유형은 참고, 연구 및 교육 목적을 위해 수집된 예술작품의 사진, 인쇄물, 필름 등을 소장한다.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는 우리나라의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록물을 제공한다. 기록의 핵심원칙인 출처주의는 비단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정통성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분야에서도 중요해졌다(황동열 2012).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미술작품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대림미술관, 뫼움현대미술아카이브 등이 있다. 사례분석을 위해 각 기관 및 단체별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자체적인 아트 아카이브의 보유 여부이다. 지역예술단체의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기록물의 기술 요소, 계층 구성을 참고하기 위한 필요 기준이다. 따라서 삼성미술관 리움과 대림미술관은 분석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온라인으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거나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나 온라인이 아닌 해당 오프라인 아카이브 내에서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 플랫폼인 CollectiveAccess를 활용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과 다르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사례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초기부터 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온라인 서비스를 목적을 가지고 예술작품의 작가와 작품의 연계 정보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 및 단체 등의 정보를 통합검색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 시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거나 서비스 구조가 복잡하여 기관의 예산이나 운영 등의 정책적인 측면이 지역예술단체의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성격과 다르지 않은지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자체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초기 목적부터 디지털 아카이빙과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작품과 작가 및 관련 단체, 기관 등의 기록물 기술이나 검색이 가능한 단체로서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와 무용 현대미술아카이브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는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로서 예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예술단체나 개인이 연구와 교육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된 디지털 저장소로 알려져 있다. 2013년도 홈페이지 개편 이후 현재까지 공연예술기록은 약 12,500건, 시각예술기록은 약 58,500건 등의 <표 3>과 같은 다양한 기록을 수집 및 서비스하고 있다.

<표 3> DA-Arts가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의 유형

분야	등록작품	문서자료	이미지자료	영상자료	음원자료
공연예술	12,562	7,263	25,911	2,280	692
시각예술	58,440	-	-	-	-
창작음악	514	613(악보)	517	184	206
기술채록	11	1	6,075	-	-
합계	71,527	7,877	32,503	2,464	898

총 등록 작품 수가 약 72천여 건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인 반면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정책에 따라 운영한다. 일반 이용자는 기록물의 온라인 검색과 기록물의 메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사본 신청과 오프라인 열람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예술단체나 예술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직접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나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A-Arts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제한된 참여형 아카이브의 방식을 띤다. 특히 시각예술기록의 경우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 장르, 창작년도를 비롯한 기본적인 맥락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기술정보에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술정보는 크게 작품과 작가에 대한 기술정보로 나

뉘며 <표 4>와 같다.

DA-Arts의 목적은 분산되어 있는 예술분야의 예술가와 관계자 및 예술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유형의 예술을 공유하고 연구하며 가치 있는 예술기록을 관리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보관하던 예술기록을 한 데 모아 공공의 기록으로 재생산하는데 참여한다.

<표 4> DA-Art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술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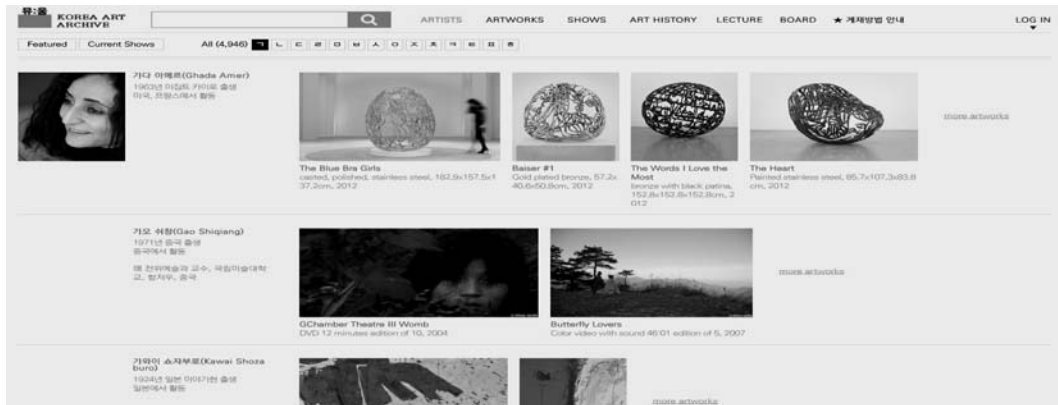
작품 관련 기술 요소	작가 관련 기술 요소	문화예술정보 기술 요소
작품명	작가명	Title
공연단체	(예명)	Creator
공연장소	본적	Subject
장소상세	(분야)	Description
공연날짜	출생	Publisher
장르	(연구자)	Contributor
연출	활동분야	Date
출연	(사이트)	Type
행사명	주요약력	Format
작성자	(시리즈번호)	Identifier
공연설명	콘텐츠	Language
제작진	구술자료	Relation
콘텐츠		Location
		Audience

나. 류움 현대미술아카이브

류움 현대미술아카이브는 2009년부터 작품 전시자료와 작가 및 작품을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국내의 작가들의 컬렉션을 선보이며 교육기관 및 미술관과 연계하여 연구와 기획전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천 여명의 현대미술작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류움 현대미술아카이브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미술자료부터 작품, 작가에 이르기까지 관련정보가 연동되어 통합검색 가능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일반 이용자를 비롯한 미술아카이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컬렉션의 정보이용과 소통이 가능하다.

류움 현대미술아카이브 역시 디지털 전시나 아카이브를 위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축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으로 예술자료의 생산자인 ‘Artists’와 예술작품인 ‘Artworks’ 위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rtists’ 카테고리에서는 등록된 국내외의 작가들을 가나다순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그림 2>와 같이 제공한다. 작가를 통해 세부정보를 탐색하게 되면, 작가에 대한 매우 상세한 이력이 나오며 추가적으로 작가의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작가와 관련된 수상이력과 성격, 작품 성향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Artworks’에서는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있는 주요 예술작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화, 사진, 조각, 판화 및 조형, 미디어, 디자인의 분류별로 해당 예술작품과 해당 작품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rtworks’ 페이지에서는 작가보다 작품을 위주로 작품의 이미지와 작품명, 규격, 재질 등 및 작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Artists’페이지에서 해당 작가가 전시 중인 작품과 이용자가 탐색하거나 검색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며, ‘Artworks’ 페이지에서는 해당 작품과 관련 있는 전시 작품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서, 해당 작품을 생산한 작가의 다른 작품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뮤움 현대미술아카이브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와 비슷하게 예술작품기록이 기술되었으며, 반면 뮤움 현대미술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림 2〉 뮤움 현대미술아카이브의 Artists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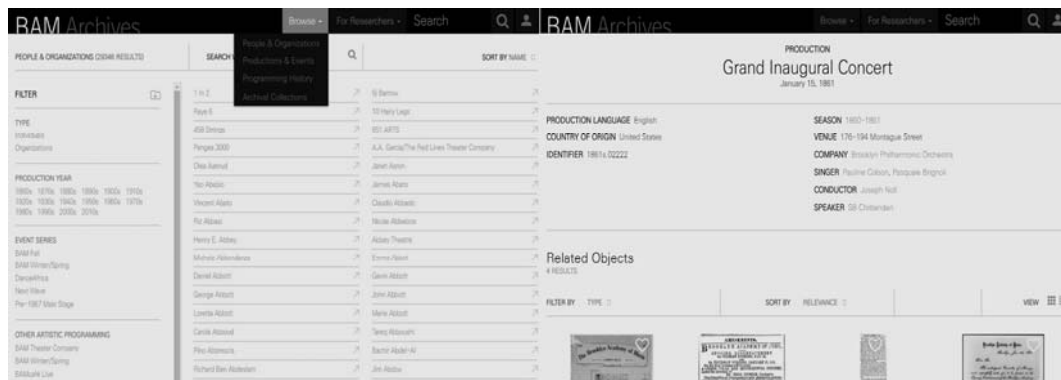
2. 국외사례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대표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인 ICA의 AtoM, 전시 아카이브에 유용한 OMEKA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나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CollectiveAccess의 장점을 살린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CollectiveAccess로 구축된 아카이브가 없는 바와 달리 CollectiveAccess로 구축된 국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공개소프트웨어로 구축된 아카이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The BAM Hamm Archives

The BAM Hamm 아카이브는 CollectiveAccess를 활용하여 구축한 대표적인 디지털 아

카이브이며, 여기에서 BAM은 브루클린 음악원(Brooklyn Academy of Music)을 지칭한다. 브루클린 음악원은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멀티 아트센터이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브루클린 음악원은 모험적인 예술가와 관객들 및 아이디어를 위한 전 세계 및 지역 사회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브루클린 음악원은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영화 등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아티스트와 혁신적인 현대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BAM Hamm 아카이브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시민과 예술가의 각종 기록물- 신문 스크랩, 사진, 책, 극장 프로그램, 홍보 자료, 비디오, 건축 계획, 포스터, 행정 기록, 생산 요소, 예술 및 기타 자료 등을 1857년부터 현재까지 3천 피트의 높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디지털화하여 연구자와 일반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를 위한 주제별 탐색기능과 연구자를 위한 고급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주제별 탐색기능은 네 가지의 ‘People & Organizations’, ‘Productions & Events’, ‘Programming History’, ‘Archival Collections’로 나뉘어져있으며 구분에 따라 인물과 단체, 작품과 행사, 프로그램 연혁, 기록물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그림 3〉 BAM Archives의 주제별 탐색화면(좌) 및 기록물 기술 요소의 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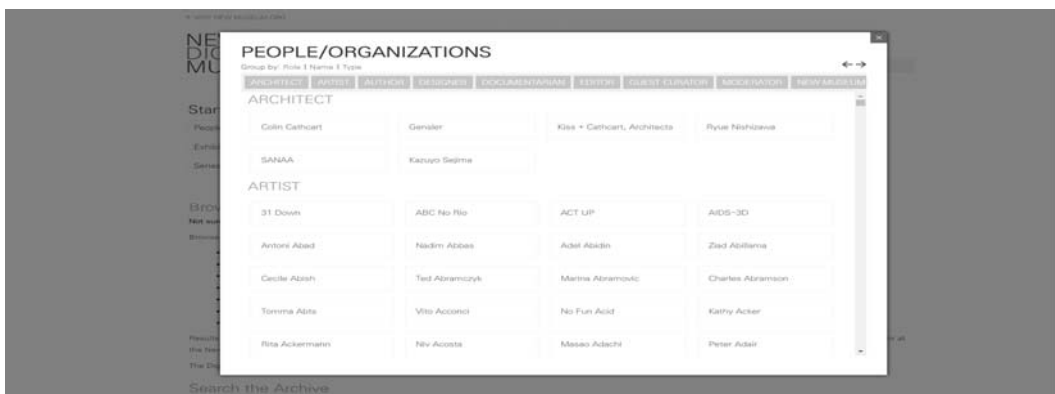
인물과 단체의 탐색은 개인과 단체로 분류되는 탐색 유형과 작품년도, 행사 시리즈 및 다른 예술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필터의 설정을 통해 일반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물과 단체를 분류로 한 기록물은 29,346건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작품과 행사를 분류로 한 기록물은 10,362건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필터를 설정하여 출력된 검색 결과는 필터 우측에 위치한 ‘Export’기능을 사용하여 엑셀 파일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설정된 필터로 출력된 결과 내에서 추가적인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결과를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각 기록물에는 고유의 ‘IDENTIFIER’ 번호를 기술하여 기록 자원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인 더블린 코어(Dublin Core)를 기록물의 유형에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나. New Museum Digital Archive

New Museum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박물관의 활동과 프로그램의 역사에 관한 독특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CollectiveAccess로 구축된 New Museum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는 약 8,000개의 문서와 시청각 기록뿐만 아니라 New Museum의 35년의 역사와 관련된 4,000명이 넘는 예술가, 큐레이터 및 단체들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New Museum 디지털 아카이브는 CollectiveAccess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치 미술, 공공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 박물관 간행물, 브로슈어, 보도 자료 등의 1차 사료와 2차 사료에 대한 무료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New Museum 디지털 아카이브도 BAM 디지털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8개의 분류로 나뉜 탐색 기능을 제공한다. 8개의 분류는 ‘People/Organizations’, ‘Bowery Artists’, ‘Building Initiatives’, ‘Exhibitions’, ‘Public Programs’, ‘Publications’, ‘Series’, ‘Object type’으로 구성되며, 각 분류는 동시에 이용자가 기록을 탐색하기 위한 필터와 같은 구분이 되며, 알파벳 순서와 연도별 탐색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BAM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탐색을 위한 분류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New Museum 디지털 아카이브는 각 탐색 분류에 필터를 추가하여 두 디지털 아카이브 모두 ‘People/Organizations’에서 ‘People’이나 ‘Organizations’의 필터를 설정함으로써 탐색 범위를 좁힐 수 있지만, New Museum은 <그림 4>와 같이 ‘Role’ 필터를 추가하여 고급 검색이 아님에도 이용자가 더욱 기록물에 접근하기 쉬운 탐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BAM 디지털 아카이브가 서명, 키워드, 식별번호, 기록물 유형, 기록생산범위의 필드로 구



<그림 4>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의 탐색 기능

성된 고급검색을 이용하여 특정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New Museum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앞서 언급한 탐색 분류에 따라 관련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이미지와 문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각 기록물에 기술된 요소는 메타데이터 표준인 더블린 코어(Dublin Core)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3. 시사점

국내·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인 기술계층,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검색기능과 전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네 가지 분야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기록은 작가가 생산한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 등 다양하다. 국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각 기록의 특징에 맞게 적절한 컬렉션, 시리즈 등 기술 계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록의 유형과 특징이 다양한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 계층이 요구된다.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기록은 많은 메타정보를 가지고 있다. DA-Arts가 제공하는 정보 기술 항목과 같이 하나의 기록에 대해 이와 관련된 작품, 작가, 단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등 기술하는 영역이 다양하다. 또한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기록은 오디오, 비디오, 간행물, 브로슈어 등 여러 가지 유형과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적절하게 디지털 아카이빙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메타데이터 표준이 필요하며 시스템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는 이용자에게 기록 전시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 서비스하는 기록들은 단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형식의 자료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유형과 형식의 기록들을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BAM Archives와 New Museum을 보면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 분류별 탐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필터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시스템에서는 소장한 기록에 대해 다양한 접근점 지원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기록을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IV.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1. J미술협회 기록물 유형 및 특징

지역예술단체를 기반으로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J미술협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생산한 디지털 파일과 포스터, 간행물 및 수기로 작성된 문서 등을 수집하였다. J미술협회는 1년 단위로 정해진 운영계획에 맞춰 매년 지역 내의 시각미술 장르의 공모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각미술 유치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J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49회를 맞이하는 J미술대전은 1962년에 창립된 J미술협회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었다.

지역예술단체로서 J미술협회가 소장하는 기록은 행정기록과 예술기록이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혼합형태의 기록-시각예술기록에는 시각예술기록을 소장하거나 관리하는 아트 아카이브의 업무과정 중 생산된 행정기록 종류와 아트 아카이브가 시각예술작품과 관련하여 작가 또는 작가의 유가족 등에게 구매, 위탁, 기증 받은 수집기록 종류가 있다(황진현, 임진희 2012). J미술협회의 기록물은 과거 우리나라의 근대화 붐이 일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르러 지역문화의 변천사에 대한 변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최해온 J미술대전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작가 및 작품과 관련된 기록물들은 J미술협회가 주관해온 운영계획과 개최방식에 따라 혼재되어 있다.

J미술협회가 직접적으로 생산한 기록물과 공모전 개최로 인하여 수집되는 기록물을 종합하여, 협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도록 주요 활동과 세부 활동으로 나누고, 활동 영역에 해당되는 기록물의 유형을 조사하여 <표 5>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위 범주에서의 기획활동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들은 대부분 회의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양식으로 인쇄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회의 참여자들의 서명을 받아 철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홍보활동에서 출판되는 도록이나 기타 홍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록은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심사활동과 관련된 기록물도 비슷하게 심사표와 심사평을 제외한 기록물은 대부분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 많았으며, 이 또한 일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시 및 시상식활동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록물도 작품사진과 전시장 및 시상식의 활동을 담아낸 이미지 파일이 대부분이었으며, 평가활동과 관련된 평가회의록, 보고서 등의 내부문서는 존재하나 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표 5〉 J미술협회의 공모전 활동 분류

주요 활동	세부 활동	기록물 종류
기획	운영계획	도전초대공문, 견적서, 원서, 공고문, 미술대전 출품원서, 운영위원회의자료, 심사위원 위촉 서류, 심사위원 명단, 운영회의사진, 도전운영위원서명단 등
	운영위원회 선출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위원회의자료, 운영위원회 명단 추천 서식자료, 역대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위원회 명단
	초대작가 선정	초대작가 승인 자료, 초대작가 회의자료, 초대우편, 초대운영위원회 안내 자료, 초대작가회의 참석자 서명자료, 초대작가 문자발송 내역, 승인명단, 초대작가 증서, 초대작가회의사진, 초대작가회의 음성녹음자료
홍보	출판	미술대전 도록
	홍보물 제작	미술대전 홍보 현수막, 리플릿, 팸플릿
	홈페이지 관리	
	보도자료 수집	미술대전 언론보도자료
심사	작품 접수	작품 접수 현장 사진, 운영회의 안내 자료, 작품 접수 안내 자료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회 사진, 외부심사위원추천서, 심사위원 서명 자료, 입상자 구분표
	1차 심사	심사위원회 사진, 1차 심사표, 1차 심사서류목록
	2차 심사	심사위원회 사진, 2차 심사표, 2차 심사서류목록
	종합 심사	종합대상 선출 사진, 총심사평, 분과별 심사평, 분야별 수상작 사진, 종합대상 사진
전시 및 시상식	전시활동	1부 전시 사진, 2부 전시 사진, 전시장 사진
	시상식	수상자 시상사진, 시상식장 사진, 시상식 사진
평가	평가회의	

J미술협회 기록은 공모전, 전시 등과 같이 매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생산되며 J미술협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대부분 협회가 추구하는 공모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기록물의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하나의 세부 활동으로 인한 많은 건수의 기록물이 매년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2. 구축 시 요구사항

공개소프트웨어인 CollectiveAccess를 기반으로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그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시 서비스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시 요구사항은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관리 및 서비스 측면 요구사항과 시스템 측면 요구사항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예술단체 기록 중 행정적 기록과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전시적 측면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전시적 측면의 기록들은 공개소프트

웨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시 기능을 통해 효과적인 전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역예술단체의 기록의 다른 특징은 매년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들 많다는 점인데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 적절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 측면에서 원하는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스템 측면 요구사항은 물리적 환경 구성과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서버와 스토리지가 필요하며 시스템 보안과 기록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서버에 접근하여 기록물의 정보를 등록 및 수정하기 위해서 관리용 PC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기 위한 입력장치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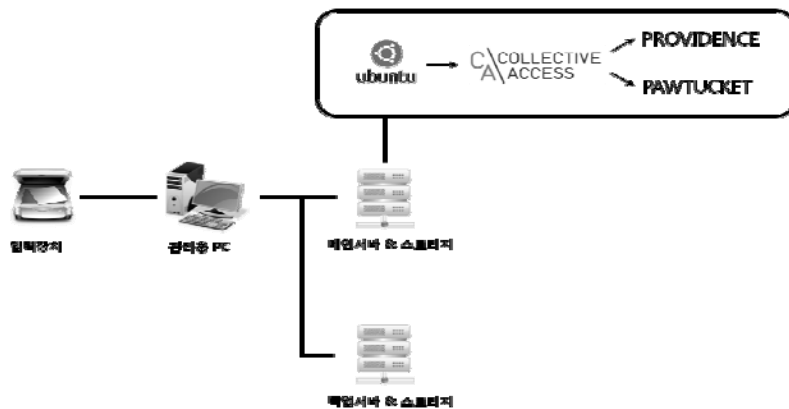
CollectiveAccess는 리눅스(Linux) 플랫폼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시스템 구현을 위해 먼저 서버에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한다.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는 Ubuntu, CentOS, OpenSUSE 등 다양하며 각각 운영체제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운영체제의 특징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적절한 운영체제 선정해야 한다. CollectiveAccess는 웹서버 기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CollectiveAccess를 설치하기 이전에 웹서버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웹서버 환경은 웹서버 어플리케이션인 Apache나 nginx, 웹프로그래밍언어인 PHP,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MySQL의 설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또한 CollectiveAccess는 최근 업데이트된 이후 출시된 Apache, PHP, MySQL 최신 버전에 대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각 어플리케이션은 CollectiveAccess에서 지원하는 버전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3.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현

가. 시스템 환경 구현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전체 시스템 환경을 구현하면 <그림 5>와 같다. 웹 기반 공개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동할 서버와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기록물을 보관하는 스토리지가 있으며, 백업용 서버를 두어 시스템 해킹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기록 손상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관리용 PC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하여 기록물을 등록하거나 기록물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스캐너를 통해 비전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입력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버 내에는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인 Ubuntu 16.04를 설치하였다. CollectiveAccess를 설치하기 이전에 웹기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Apache v2.4, PHP v5.6, MySQL v5.6을 설치하였다. 이후 가장 최신 버전인 CollectiveAccess v1.7.5를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시스템 환경을 구현하였다. CollectiveAccess는 기록의 등

록, 편집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Providence와 전시 어플리케이션인 Pawtucket으로 구성된다. Providence는 체계적인 분류계층과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유형의 기록들을 등록 가능하며 기록의 일괄편집, 가져오기 기능 등 기록의 정보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한다. Providence를 통해 등록된 기록은 Pawtucket을 통해 전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Pawtucket은 다양한 전시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가 공개한 컬렉션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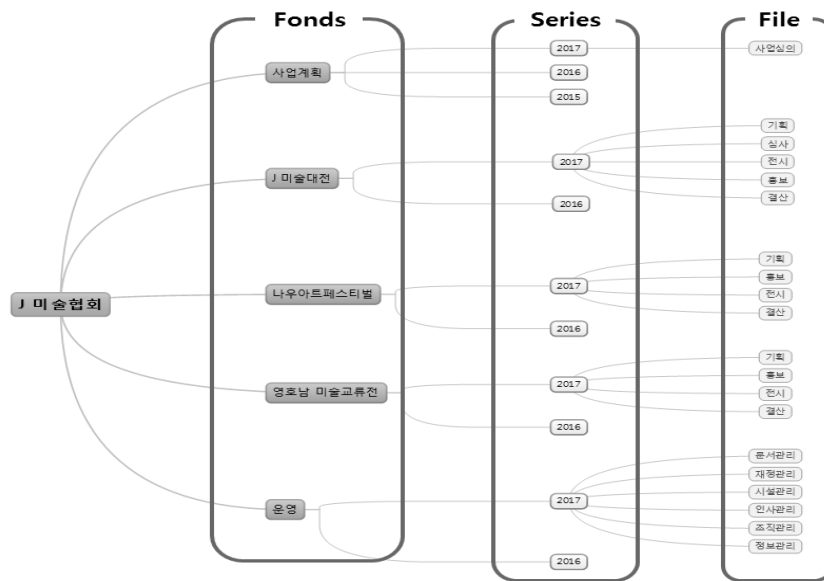


<그림 5>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시스템 환경

나. 기술계층 및 메타데이터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CollectiveAccess에 적용하기에 앞서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기술계층을 구성하였다. J미술협회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존재하지 않고 협회 내 행정적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기록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록물의 기술계층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S5090과 DIRKS 방법론을 참고하여 J미술협회의 업무분석 및 기록물 조사, J미술협회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통한 J미술협회의 기능분석을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그림 6>과 같이 J미술협회 기록물의 기술계층을 구성하였다. J미술협회의 업무는 사업계획, J미술대전, 나우아트페스티벌, 영·호남미술교류전, 운영으로 구분되며 CollectiveAccess에서 Fonds으로 설정하였다. CollectiveAccess에서 Fonds은 OMEKA의 Collection의 개념과 유사하며 전체 기록에 대한 가장 상위 집합 개념이다. 업무분석을 통해 파악된 J미술협회의 5가지 주요 업무를 CollectiveAccess의 가장 상위 계층인 Fonds로 설정하였다. 사업계획은 J미술협회의 전년도 사업의 평가와 한 해 운영할 모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심의를 진행하며 생산되는 기록이다. J미술대전, 나우아트페스티벌, 영·호남미술교류전은 J미술협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기록은 프로젝트 성격을 가지며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기록이기 때문에 전시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운영은 J미술협회의 인사, 재정, 시설, 조

직 등의 운영 및 관리를 할 때 생산되는 기록들이 포함된다. J미술대전, 나우아트페스티벌, 영·호남 미술교류전은 매년 진행되는 프로젝트 성격의 기록들의 집합이며 사업계획, 운영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의 집합이다. Series를 연도별로 구분함으로써 각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File은 Series의 세부 기능 분류이며 Item은 실제 생산된 여러 가지 유형의 기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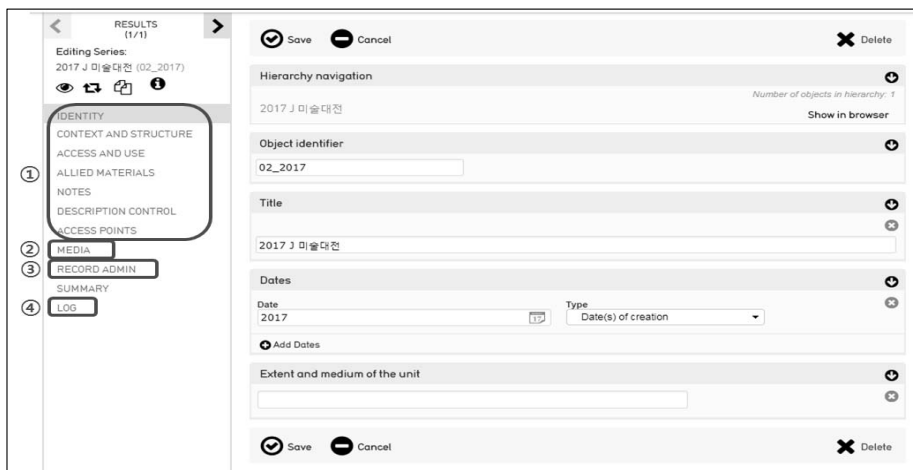
<그림 6> J미술협회 기술계층

다음으로,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기술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기록물 기술 메타데이터 표준을 설정하였다. CollectiveAccess에서는 DublinCore, DarwinCore, EBUCore, PBCore, CDWA-Lite/CCO, VRACore, SPECTRUM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과 국제 기록물 기술 규칙인 ISAD(G)와 미국의 보존 기록 기술 규칙인 DACS를 지원한다. 메타데이터는 CollectiveAccess 시스템을 설치 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예술단체 기록물은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며, 기록물의 양이 많다. 지역예술단체 기록 중 일부는 예술기록이며 이와 유사한 특징의 기록들이 있어서 DublinCore, VRACore, SPECTRUM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가진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계층 기술이 가능한 국제 기록물 기술 규칙인 ISAD(G)를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기록물 기술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선정하였다.

다. 기록의 등록 및 수정

지역예술단체 기록에 대해 기술계층과 메타데이터 설정이 완료되면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CollectiveAccess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CollectiveAccess에서 관리자 로그인을 한 후 우측 상단 탭에서 'NEW-Object'에 들어가서 원하는 기술계층을 선택하면 <그림 7>과 같이 CollectiveAccess의 기록물 등록화면이 나타난다. 기술할 수 있는 영역은 등록화면의 좌측 탭과 같다. ①은 ISAD(G)에 기반한 기술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CollectiveAccess를 설치할 때 선정했던 메타데이터 표준에 따라 기술해야 하는 영역이 다르다. 초기에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을 선정하면 이에 기반한 기술영역이 나타난다. 만약 ISAD(G)와 같이 다계층 기술이 아닌 단일계층 기술을 지향하는 메타데이터 표준이라면 ①에는 하나의 탭만 존재하게 된다. ②는 기술하는 기록물과 관련된 디지털 파일을 첨부하는 탭이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가진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여기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첨부파일마다 이용자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③과 같이 등록하는 기록물에 대한 전체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관리자는 특정 기록에 대해 정보의 일부만 공개가 가능하다. 기록물의 첨부파일만 비공개로 설정하면 이용자는 기록물에 대한 기술정보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CollectiveAccess의 특징은 지역예술단체 기록 중에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기록과 단체 내 비문과 같은 기록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CollectiveAccess는 ④와 같이 생성한 기록물을 감사증적 할 수 있다. 기록물의 LOG 파일에는 해당 기록물을 언제 누가 생성하였고 변경하였는지 자동으로 기록된다. 또한 기록물이 삭제 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삭제 기록물에 대한 LOG 파일이 남는다. 이러한 특징은 관리자가 실수로 기록물을 변경 시 이를 확인하고 다시 바르게 수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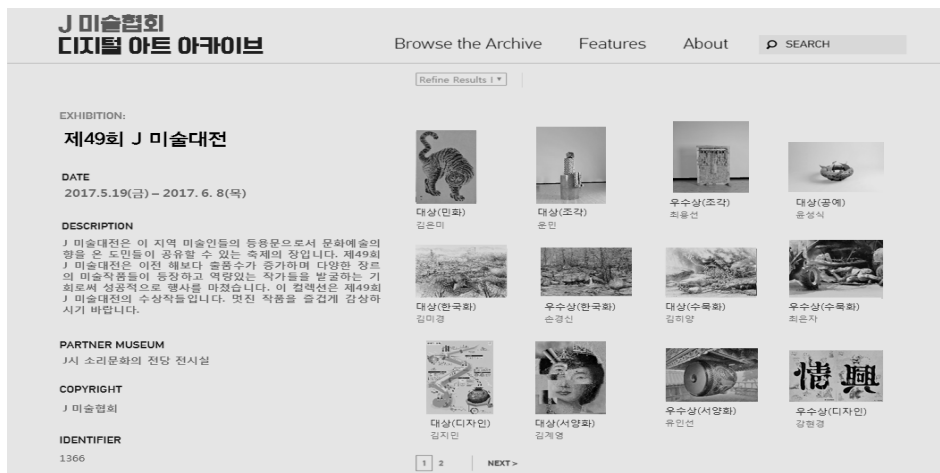


<그림 7> CollectiveAccess 등록 화면

라. 전시 서비스

지역예술단체는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J미술협

회의 경우 J미술대전, 나우아트페스티벌, 영·호남미술교류전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예술단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기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 성격의 기록들에 대해 각 프로젝트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8>은 Pawtucket을 활용하여 만든 J미술협회의 기록물 전시 중 J미술대전 Fonds에서 “2017” Series의 기록물 전시이다. 화면 좌측에는 2017 J미술대전 Series의 기술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화면 우측에는 관련 기록물에 대한 사진을 살펴볼 수 있다. Pawtucket은 관련 사진기록 뿐만 아니라 관련 영상,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에 대해 뷰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제공되는 기록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8> J미술대전 전시 서비스 화면

마. 검색 기능

CollectiveAccess는 Basic search, Advanced search, Browse로 세 가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Basic search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와 연관된 기록들을 찾아주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색 기능이다. Advanced search는 Basic search 검색 기능에서 더욱 확장된 검색 기능으로 각 기술 요소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Advanced search의 검색화면은 <그림 9>의 ①과 같으며 CollectiveAccess에서는 ②와 같이 관리자가 검색 요소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자의 적절한 검색 요소 설정은 Advanced search를 더욱 유용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원하는 기록에 대한 검색이 편리해진다. 또한 CollectiveAccess에서는 Browse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Search 기능처럼 이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해서 원하는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장한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기록을 찾는 기능이다. Browse 또한 관리자가 임의로 카

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의 주제, 유형, 포맷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더욱 쉽게 원하는 기록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9> Advanced search 기능

V.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예술문화의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예술단체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시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분야 지역예술단체인 J미술협회를 중심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인 CollectiveAccess를 통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구축을 위해 웹사이트 및 관계자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예술단체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사립단체인 지역예술단체 특성 상 기록관리가 미흡하며 전시 서비스 또한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지역예술단체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적합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AtoM과 OMEKA와 기능 비교를 통해 CollectiveAccess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지원하며 전시 서비스 기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는 체계적인 기술 계층과 메타데이터 표준이 필요하며 전시 서비스와 검색 기능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J미술협회 기록의 유형과 특징 분석을 통해 J미술협회 기록들은 주로 매년 진행되는 공모전, 전시 등을 통해 생산되며 다양한 유형과 포맷의 기록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예술단체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사례 분석, J미술협회 기록의 유형 및 특징 등을 통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 시 요구되는 사항을 관리 및 서비스 측면과 시스템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예술문화의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해왔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서비스가 부족하였던 지역예술단체를 중심으로 CollectiveAccess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AtoM은 기록관리, OMEKA는 전시서비스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하면서 전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두 가지 공개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축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CollectiveAccess는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동시에 효과적인 전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록관리 공개소프트웨어로 활용성이 높다. 향후 CollectiveAccess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와 다른 예술 분야의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달진. 2012. 한국 미술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 여건과 과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41-282.
- 김이경. 2011. 『예술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뮤움 현대미술아카이브. <<http://www.mu-um.com/>> [인용 2017. 7. 6].
- 박상애, 김기영. 2016.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품질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년 8월 25일, 서울: 연세대학교, 63-66.
- 박태연, 신동희. 2016.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21-150.
- 방기영, 김건, 황창주, 김용. 2016. 축제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개용 소프트웨어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3): 31-61.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 송정숙, 허정숙, 이린. 2014. 오픈소스를 이용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27-151.
- 오동욱. 2013.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공연 분야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12(1): 99-112.
-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

- 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기록학연구』, 39: 193-228.
- 양효석. 2004. 지역문화예술인 육성과 중복의 대응. 『충북학』, 6: 31-52.
-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기록학연구』, 40: 61-93.
- 정명주. 2006.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선기. 2010. 『지역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 정지훈. 2014. 기록관리 대중화를 위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년 10월 17-18일, 대전: 한남대학교, 147-152.
- 정혜린, 김익한. 2009.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0: 151-212.
- 정혜지. 2016. 『미국 9·11 메모리얼의 재난기록물 수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최윤진, 최동운, 김형희, 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135-183.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www.daarts.or.kr/>> [인용 2017. 7. 6].
- 황동열. 2012. 문화·예술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기록인』, 18: 22-27.
- AtoM. <<https://www.accesstomemory.org/ko/>> [인용 2017. 7. 6].
- CollectiveAccess. <collectiveaccess.org> [인용 2017. 7. 6].
- New Museum Digital Archive. <<http://archive.newmuseum.org/>> [인용 2017. 7. 6].
- OMEKA. <omeka.org> [인용 2017. 7. 6].
- The BAM Hamm Archives. <<http://levyarchive.bam.org/>> [인용 2017. 7. 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un-Jin, Choi, Dong-Woon, Kim, Hyung-Hee, Yim, Jin-Hee. 2014. A study on the exhibition through the web with open source software OMEK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135-184.
- Chung, Sun-Kee. 2010. *For Vibrant Activity of Local Arts & Cultural Organization*.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 Hwang, Dongyeol. 2012. Efficiently Operational Plans of Culture & Arts Archives, *Archives People*, 18: 22-27
- Jeong Hye-Rin, Kim Ik-Han. 2009.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of Art

-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0: 151–212.
- Jung, Kong Ju, Park, Ju Seok. 2014. A Study on Acquisition Strategy of Records for Artists and Their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0: 61–93.
- Jung, Myung-ju. 2006. A Study on Art Archives.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Kim Daljin. 2012. A Current Overview on Conditions and Issues of Art Archives in Korea and Related Challenges.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24: 241–282.
- Kim, Ee-Gyeong. 2011. The Analysis of Arts Records Management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Ki-Yeong Bang, Geon Kim, Chang Ju Hwang, Yong Kim. 2016. A Comparative Study on Open Source Software for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Festivals : Focused on Chunhyang Festival in Namw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31–61.
- 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 <<http://www.daarts.or.kr/>> [cited 2017. 7. 6].
- Lee, Bo-Ram, Hwang, Jin-Hyun, Park, Min-Yung, Kim, Hyung-Hee, Choi, Dong-Woon, Choi, Yun-Jin, Yim, Jin-Hee. 2014. A Study on Usability of Open Source Software for Developing Records System: A Case of ICA Ato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193–228.
- Moon Won Seol. 2011.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217–247.
- Mu-Um Korea Art Archive. <<http://www.mu-um.com/>> [cited 2017. 7. 6].
- Oh, Dong-Wook. 2013. A Study on Archiving of Cultural Arts in a Region: Focusing on Performing Arts. *Journal of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2(1): 99–112.
- Sang Ae Park, Giyeong Kim.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Quality Evaluation for Digital Art Archives. *Proceedings of the 23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 63–66.
- Seol, Moon-Won, Choi, Yi-Lang, & Kim, Seul-Gi. 2014.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Using Open Source Software to Document Mi-ryang Transmission

- Towers Construction Confli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7-36.
- Song, Jung-Sook, Heo, Jeong-Sook, & Lee, Yea-Lin. 2014. Digital Image Archiving Methodology on the Port of Busan: A Case Study Using an Open-Source Archiving Softw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27-151.
- Taeyeon Park, Donghee Sinn. 2016. Evaluation of Open-source Software for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 Understanding System Requirements for No Gun Ri Digit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121-150.
- Yang Hyo Seok. Fostering The Local Artists and The Chungbuk's countermeasure. *Journal of Chungbuk studies*, 6: 31-52.

